

진정한 기독교적 기도와 그 함의

이승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I. 서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일이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며 어떻게 반응하시는 지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리고 요즈음은 전세계적으로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기도에 대해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고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오늘날의 한국 상황 속에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논의하는 일이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에 근거해서 바른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기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니,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약 4:2 하)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는 성도들이 해야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서로 싸운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맥락 가운데서 나온 말이다(Bruce Wilkinson, 2000). 그러므로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 기도 드려야 한다. 아주 아이로니컬한 상황의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따지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교훈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강조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 자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엡 6:18);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7, 18);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약 5:13);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아마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주께서 생전에 친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바를(“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 마 26:41. 눅 22:40; 22:46 참조) 깊이 생각하면서 그 때 기도하지 않은 자신을 책[自責]하면서 더 진지하게 이 기도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구약에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셨다(잠 15:8).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이다(잠 15:29).

그러나 우리가 그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주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1)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그에 의존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cf. 요 15:7; 요 14:13f.; 15:16; 16:23-26). (2) 그리스도께 의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3)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유념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대답하자면, 분명히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다.

첫째로, 만일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κακώς, corruptly)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약 4:3)(Sopie Laws, 1987: 56, 173). 어떤 일을 잘못된 정욕들(ήδοναι)을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십자가 구속의 적용함을 얻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벧전 4:2).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원칙상(in principle) 육체를 따라(κατὰ σάρκα) 사는 이가 아니다. 그는 이제 성령을 좇아(κατὰ πνεῦμα) 사는 이이다(Herman Ridderbos, 1966; Donald Guthrie, 1981: 558-62; G. E. Ladd, 1993: 561-63).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κατὰ σάρκα) 생각하거나, 육체를 따라(κατὰ σάρκα) 욕심을 내거나, 육신을 따라(κατὰ σάρκα)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과연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욕망하고, 의도하는 것이냐고 할 때, 가장 현저한 것으로 “이기적 동기”(selfish motives)를 따르는 것(Douglas J. Moo, 1985: 142),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Martin Dibelius, 1964). 즉, 그 기도의 동기와 결과가 “다른 이들을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 때”를 생각하면 된다(Martin, 1964: 147; Burdick, 1981: 193). 그런 것이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현저하고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도할 때 이처럼 순전히 이기적 동기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κακώς)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로부터 받으리라고 기대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것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왜곡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보다 훨씬 폭 넓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성령을 좇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다 육체를 따라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시편에

¹ 이에 대해서는 역시 갈라디아서 5:16-26의 가르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죄악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결국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만 유념해도 우리는 엉터리 같은 기도나 기도에 대한 잘못되고 엉터리 같은 관념과 강조 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는 때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를 생각해 보라.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일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사 1:15).² 이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슨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가 어떤 요술 방망이나 마술 봉(magic wand)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효한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기도뿐이다. (또 이상한 논리를 적용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회개 기도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지 말라. 성경 해석은 자연스러운 맥락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 미리 선언해 주셨던 대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은 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고 하신다. 애통하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던 세리는 의롭다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주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눅 18:13, 14). 다시 말하지만, 죄가 있으면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하여 회개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그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John Calvin, 1993: 477f).

성도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예로 가정 생활을 주께서 가르치신 도리를 따라 잘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가장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7-8의 말씀일 것이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 의미를 따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가정 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남편들[οἱ ἄνδρες]을 중심으로 말하여) 아내와 동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의 진리에 대한 풍성한 내용의³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συννοικούντες κατὰ γνώσιν),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ὡς ἀσθενεστέρῳ σκεύει τῷ ὑποτακείῳ) 알며,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συγκληρονόμοις, joint heirs)로 알아 귀히 여겨야(“영예를 주어야”, ἀπονέμοντες τιμὴν)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등한 지위와

² 이 구절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승구(1995)를 참조하라.

³ 이 점에 대해서는 Grudem(1988: 143)과 그가 인용하고 있는 James Dobson(1976)을 보라.

동등한 중요성에 대한 시사와 강조를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만일이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ἐγκόπτεσθαι*, hindered)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루뎀이 잘 표현한 바와 같이, “그 어떤 남편도 그 아내를 존귀하여 여기며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아내와 살지 아니하면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Wayne Grudem, 1988: 146). 또한 그 앞부분에서는 아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안에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벧전 3:1-6).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원칙에 따라 가정 생활을 해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즉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고 하시는 것이다. 즉, 미카엘스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믿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되고 그들의 소망은 불확실하게 된다”는 것이다(J. Ramsey Michaels, 1988: 172).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 가르침 외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의 한 부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교훈도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Grudem, 1988: 146).

둘째로,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악의 한 예이기는 하지만, 이는 죄이면서 또한 죄를 양산하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아마도 이 점을 가장 실랄하게 지적하는 말씀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可憎)하니라”(잠 28:9)는 말씀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또 율법이 심히 가까이 있는 대도 그것에 착념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는 그리할 수 없도록 율법이 가까운 상황인데도 그 심령으로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이가 기도하겠는가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생각이므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빈 다든지, 철도 육교 위에서 기차의 꿈무니 부분을 밟고 서서 마음의 소원을 빈 다든지, 생일 축하 케이크를 앞에 놓고 소원을 빈 다든지, 닭의 wish bone을 찾아서 두 사람이 그것을 잡아 다녀 큰 쪽을 얻게 된 이가 마음의 소원을 빈 다든지 하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들의 상황이 이런 것을 반영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이 무지(無知)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율법의 가르침과 그 정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본래의 의도에 착념하지 않는 이들이 이런 인간의 보편적 기원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可憎)하다고 선언하신다. 왜 그런가? 기도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될 수 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을 하는 것,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可憎)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교제가 될 수 있느냐고 주께서 논박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

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 질리 없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可憎)한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겠는가?

셋째로, 주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이를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ἀνὴρ δίψυχος, double-minded man)라고 말한다(약 1:8). 아주 독특한 이런 표현은⁴ 아마도 악인의 거짓 말하고 아첨하는 것을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이해하던 시편의 이해와(시 12:2)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두마음을 품은 것으로 표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해(호 10:2)를 반영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나(시 119:2),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목적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일을 “두 마음[ἐν καρδίᾳ διουσίᾳ]을 품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던(대상 12:33) 구약의 습관을 따른 것일 것이다.⁵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즉 그 바램(desire)의 단일성(singleness)과 동기의 순수성이 있는 이가 온전한 이이고 순수한 이로 이해된다.⁶ 결국 단일한 마음이라는 것은 전적이고 온전한 인격(a whole and complete personality)의 표현인 것이다.⁷ 그런 인격을 가진 이들은 평소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신경 쓰고,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성(constancy)과 신앙의 굳음(resolution in faith)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 되는 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는 항상 요동하며 이리 저리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이다.⁸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상 사이에 그 마음이 나뉘어진 자”라고 표현했던 J. H. Ropes의 이해가(J. H. Ropes, 1916: 143) 그리 사실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주께서 이루시지 말기를 원하거나 주께서 과연 이루실까를 의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고보가 이 용어를 만들어 내었다고 하기도 한다(J. B. Mayor, 1954; Moo, 1985: 65). 그러나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는 거의 없다. 언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Laws, 1987: 61).

⁵ 이를 적극적으로 아주 분명한 것으로 언급하는 이로 James Adamson(1976: 60)을 보라. 이를 시사하는 이로는 Moo(1985: 65f)을 보라. 또한 이를 언급하면서 다른 자료도 언급하는 Laws, 1987: 58, 60)도 보라. 그러나 그녀는 야고보는 적어도 이 두 마음의 배후를 빛의 왕자와 어두움의 천사와 같은 우주적 천사적 세력의 활동과 연관시키는 쿰란 문서들(1 QS iii. 20-24)이나 평강의 천사와 벨리알과 연관시키는 유대교 문헌이나(Test. Benj. vi. 1,7), 그리고 후기 기독교 문헌의 두 영이나(Hermas *Mand.* ix. 1-17) 어두운 영(Barna. xx.1)과 연관시키는 일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Laws, 1987: 59).

그러므로 이로부터 몸과 영혼의 이분법이나 “푸슈케”의 복합적 분성을 생각하는 플라톤적 이해나 심지어 “푸슈케”의 삼분적 성질을 생각하기도 하는 필로(Philo)의 견해와 여기 말하는 “두 마음”을 연관시키는 일은 전혀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또한 야고보서와 유대교 문서(Tanḥ 23b, Sir. 1:28), 후기 기독교 문서들(Hermas, Didache, I & 2 Clement)의 용례를 비교하는 것도 그리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논의들로 O. J. F. Seitz, 1944: 131-40; Martin, 1964: 20)을 보라.

⁶ “마음의 순결”(purity of heart)을 이와 같이 단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를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한 예로 우리는 S. Kierkegaard(1948)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⁷ 이런 이해를 표현한 예로 E. M. Sidebottom(1982: 28)을 보라.

⁸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6-8과 에베소서 4:14, 그리고 고린도전서 3:1-3을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와 같은 이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만한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연결시키는 시사를 하는 Martin(1964: 20) 등을 참조하라.

것이 된다.⁹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 “주여 내게 순결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요”는(Augustine, 60)바로 무엇인가를 구하면서도 아직은 이루지 말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것을 구하면서도 주께서 과연 그것을 주실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Ronald A. Ward, 1970: 1224; Burdick, 1981: 169).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씀하신다(약 1:7: *μη γάρ*).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는 마치 바람에 밀려(*ἀνεμίζομενον*) 요동하는(*ῥιπιζομένον*) 바다 물결(*κλάδων*) 같이 이리 저리로 요동하는 이이다. 성경은 이렇게 확신이 없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이 없이(*μηδὲν διακρινόμενος*)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께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의 자녀와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의심하는 자는 결국 (마 21:21과 롬 4:20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문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접근하기 어려운 태도인 것이다.¹⁰ 기도하는 자는 항상 온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품고 주께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다.¹¹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와야만 주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공로주의적 기도관으로¹²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유일의 근거는 십자가의 구속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죄 있는 자도 회개로 기도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들에 비추어 본 기도의 바른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마음속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전혀 요동함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것도 그것을 구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나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존재와 정서와 의지와 지식의 활동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성도가 주님의 가르치심에 근거해서 깨달은 주님의 뜻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정상적인 마음 가운데서 주께 구할 때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때

⁹ 이처럼 야고보서 1:7-8에서 야고보는 그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일반에 다 적용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논의로 Laws(1987: 58)을 참조하라.

¹⁰ 이 점에 대한 좋은 지적으로 Martin(1964:19)를 보라.

¹¹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점을 지적하지만 이를 특히 강조하는 Laws(1987: 56)을 보라.

¹²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이런 유대주의적 기도관이나 플라톤주의적 기도관을 따르는 것으로 동일시하며 잘못 진술한 예로 Sidebottom(1981: 52)를 보라. 물론 속사도 시대의 글에는 이미 이런 공로주의적 기도관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금식하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 기도를 효과 있게 한다는 생각이 *Hermas (vision 3.10.6)*에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조건이 *Hermas (Mand. 9.4)*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Dibelius, 1964: 219, 80f).

에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κατὰ τὸ θέλημα αὐτοῦ)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담대함(ή παρηγοί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요일 5:14).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ἐν πίστει) 구하는**” 것이다(약 1:6). 기도는 결국 무엇을 구하느냐에 의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구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에 의해서 제한 받게 되는 것이다.¹³ 야고보는 신앙은 기도의 본질적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주 허황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주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positive thinking)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 스토틀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편리한 방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도록 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는 규정된 방식이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John R. W. Stott, 1988: 188). 또한 스몰리의 비슷한 주장도 보라: “모든 참으로 기독교적인 중보 기도의 근본적 성격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전쟁이 아니고 반응이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로 끌어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올려 드리는 데에 있다(Stephen S. Smalley, 1984: 295).” 또한 좀 다른 강조 점을 지녔으나 같은 점을 지적하는 하워드 마샬 교수의 다음 말도 들어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를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그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Marshall, 1978: 245).”

결국 믿음의 기도는 (1) 성경에서 가르침 받은 하나님의 뜻을, (2) 성령님께 의존하는 정순한 마음으로, (3) 주님께서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의 극치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기도는 때로는 인내를, 그것도 아주 오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눅 18:1). 이 가르침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비유를 생각하거나 해석하면 결국 무조건 하나님께 강청하며 졸라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낙망할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눅 18:7)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인내하면서,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을 심지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낙망할만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

¹³ 이 점에 대한 좋은 논의로 Moo(1985: 64)를 보라.

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한 부분인 이 나라의 임함에 대한 기도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주께서 가르치신 가장 주요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것이고, 또한 주께서 친히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이 이 사실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특히 그 나라의 극치의 임함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뒤로 2,000년이 지났어도 그 나라의 극치의 임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낙망하지 말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항상성”(the constancy of unwavering faith)을(Burdick, 1981: 169)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면서 지금도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IV. 주께 바르게 기도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혹은 준비

그러므로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1)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 십자가 구속을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로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에 의존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특성이요, 매 순간의 특성이지만, 그 일의 출발점은 자신의 존재와 인식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개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하거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죄악을 주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될 수 있다¹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가, 나의 인생의 추구라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을 좇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부패한 인간성인 육체를 좇아 이것을 구하는 것이나 아닌가를 하는 것을 주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이 가장 선결적이다.

(2) 둘째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초신자들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구하지 못하겠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니 무엇보다 먼저 제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로 시작해야 하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그것을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초신자들은 그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사실 문제는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있는 지도 모른다. 그들은 심지어 기도 응답의 경험을 들먹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茶飯事)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우리 주님의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와 같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

¹⁴ 물론 이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꼭 기도가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죄 악을 품고 있는 한 주께 기도하는 것이 막히고, 주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정당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시간적인 순서로 너무 고착화하거나 율법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웁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막 14:36). 모든 참된 기도는, 스토틀 목사께서 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지리이다”는 주제의 변형 형태일 뿐이다(Stott, 1988: 188; Howard Marshall, 1978: 244).. 그러나 실제 문제는 우리 입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i) 자신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하고, (ii) 따라서 자신의 뜻(소원)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하며, (iii)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iv)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저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기원해야 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이를 매우 어려운 일로 취급하는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을 핑계로 삼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일을 정당화 해보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자신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주께 내어놓는 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를 제시하면서 “주님, 연약한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인가요? 나의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여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일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과정을 사용해서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게 하시고, 그것에 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¹⁵

셋째로,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해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서, 낙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생애가 마치 질 때까지 우리가 간구하고, 때로는 생이 끝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 간구하게 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간구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들에 대해서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서 간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이 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¹⁵ 이는 나의 강조 점과는 좀 다른 형태로 Marshall이 강조하고 있는 요점이기도 하다 (Marshall, 1978: 245).

드러나야 하옵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야 하겠나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루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에베소서 1:17-19의 간구나 빌립보서 1:9-11의 간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한 “주의 백성과 교회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엡 6:18) 등등 우리가 확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간구는 무수히 많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 생활의 현실적인 필요는 어떻게 되는가고 질문할 이들을 위해서 미리 다음 두 가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이와 같은 내용과 의식적으로 연관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2)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아 나갈 때,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부산물로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마 6:33). 그 약속은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보장이요 보상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구하여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면 주께 그것을 구할 수도 있고,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생활의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 간구하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간구도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에 의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가야 한다.

V. 결론: 이런 논의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1) 주께 기도해야 하고, 특히 (2)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구속의 공로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일을 벗어 버려야 한다. 혹시라도 시청 앞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좀더 큰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을 좀 과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모두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결국은 그 둘 모두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인간의 힘, 특히 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의 의미를 벗어나는 일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은 개인과 작은 공동체가 진지하게 그들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기도회는 잘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기보다는 이 세상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오해 하기 쉽기에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1) 주께 기도해야 하고, 특히 (2)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진정한 기도는 결국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이다.

참고문헌

- 이승구(1995), “이사야 1:10-15 석의: 종교의 내적 본질과 외적 표현의 상관성”, 『개혁 신학에의 한 탐구』, 15-25.
- Augustine, *Confession*, VII. 17.
- Bruce Wilkinson(2000), *The Prayer of Jabez : Breaking Through to the Blessed Life* (Multnomah Publishers Inc.), 마영례 옮김(2001), <야베스의 기도>, 서울: 디모데.
- Donald Guthrie(1981), *New Testament Theology*, Leicester: IVP.
- Douglas J. Moo(1985), *James*,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 E. M. Sidebottom(1982), *James, Jude, 2 Peter*,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1; Grand Rapids: Eerdmans.
- G. E. Ladd(1993),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 Herman Ridderbos(1975),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1966), trans. John Richard De Witt, Grand Rapids: Eerdmans.
- Howard Marshall(1978), *The Epistles of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 J. B. Mayor(1987), *The Epistle of St. Jam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s*.
- J. H. Ropes(1916),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ICC, Edinburgh: T. & T. Clark.
- J. Ramsey Michaels(1988), *1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49, Waco, Texas: Word Books.
- James Adamson(1976), *The Epistle of Jam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 James Dobson(1976), *Man to Man About Women*, Eastbourne: King's way.
- John Calvin(1846),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II, trans. James Anderson,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 John R. W. Stott(1988), *The Letters of John*, Revised Editi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VP and Grand Rapids: Eerdmans.
- Martin Dibelius(1975), *James*, Hermenia, Revised by Heinrich Greeven, trans. Michael A. William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O. J. F. Seitz(1944), "The Relationship of the Shepherd of Hermas to the Epistle of James," *JBL* 63.
- Ronald A. Ward(1970), "James," in *New Bible Commentary*, Leicester: IVP and Grand Rapids: Eerdmans.
- S. Kierkegaard(1948), *Purity of Heart*, trans. Douglas V. Steere, New York: Harper and Bros.
- Sidebottom, 11-13
- Sopie Laws(1987),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New York: Harper and Row, 1980; reprinted, Peabody, Mass.: Hendrickson.

Stephen S. Smalley(1984), *1, 2, 3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51, Waco, Texas: Word Books.

Wayne Grudem(1988), *1 Peter*,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VP and Grand Rapids: Eerdmans.